

기업 맞춤형 익산쌀 공급 준비

익산시, 쌀 소비 축소 위기 대응 고품질 벼 재배 위해 10월 초까지 엄격한 품질 검사 실시

익산시가 쌀 소비시장 축소 위기에 대응해 고품질 맞춤형 쌀 생산으로 기업 판로 개척을 선도하고 있다.

시는 기업 맞춤형 익산쌀 2만 7천여 톤을 국내 대표 식품기업들과 수도권 학교급식에 공급해 52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올해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 면적은 3천380ha이며 지난해 3천50ha 대비 10%가 증가했다. 매출 규모 지난해 420억원(2만3천톤)에 비해 올해 100억원이 증가한 520억원(2만7천톤)으로 전년 대비 23%로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고의 밥맛'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7주간 엄격한 품질검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급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CI 햅반 원료곡 생산단지 25개소 등 총 53개소다.

행정, 농업 등 경영체 관계자 생산단지 대표, 민간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품질검사반을 2개조로 운영하며 이품종, 이형주, 도복(쓰러짐), 잡초, 병해충, 작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고품질 원료곡을 선별한다.

재배 매뉴얼에 따른 철저한 생산관리로 거친 2만 7천여 톤의 선별 원료

곡은 CI 햅반 햅반 즉석밥 분야에 프(본죽, 본도시락 등), 수도권 학교급식 등에 공급된다.

특히 CI 햅반 원료곡 공급 전국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익산 향토 기업인 햅반의 즉석밥 원료곡을 전량 납품하고 있다.

또한 엄격한 품질관리로 서울시 학교급식에 선정돼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탐마루 친환경 쌀을 노원구, 은평구, 강북구 등에 공급하고 있다.

시는 내년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 목표를 3만 6천여 톤, 800억 원으로 정하고 농산유통과 전담팀이 대기업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한국 육상계를 빛낸 별들의 전쟁이 익산에서 치러진다

한국 최고 육상 '별들의 전쟁'

익산시,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챔피언십 시리즈 최종전

한국 육상계를 빛낸 별들의 전쟁이 익산에서 치러진다.

익산시는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익산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농민사랑 2022 전북익산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챔피언십'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고 전라북도육상연맹 및 익산시 육상연맹이 주관하며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후원하는 대회다.

'미래를 향한 도전'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대회는 총 5개 대회를 시리즈로 치러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국내 최초 왕중왕전 형태로 진행된다.

올해 여주~니주~익산~고성에서 열린 KTFL 시리즈 대회 성적과 전국 종합육상선수권을 종합해 총 5개 대회의 기록을 바탕으로 상위권의 선수들만 출전한다.

특히 신유진(원반던지기, 익산시청), 김국영(100m, 광주광역시청) 등 현재

한국기록보유자 8명과 유규민(세단뛰기, 익산시청), 정일우(여수시청, 포항던지기) 등 국가대표 13명을 포함 총 377명(남 210명, 여 167명)의 국내 최고의 선수들이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첫날 30일 오후 6시 트랙에서는 육상의 꽃인 여자, 남자 100m 필드에서는 남자 멀리뛰기와 익산시청 소속 신유진 선수가 출전하는 여자 원반던지기 경기로 경기를 시작한다.

전국 최고 육상 선수들의 경기 관람을 원하면 익산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방문해 직관할 수 있다. 유튜브 아이타임채널에서 실시간 관람할 수 있다.

정현을 시장은 "우리 익산에 전국 최고의 육상 선수들의 방문을 환영한다. 도내 유일의 육상공인종구장 보유 도시인 만큼 각종 전국규모 육상대회를 개최하여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추석명절, 종이상품권 30만원까지 구매 가능

군산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9월 한 달 동안 종이상품권 구매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한다.

군산시상품권 구매 통합한도 50만원은 동일하고, 종이상품권 10만원 한도를 3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한다.

종이상품권은 모바일·카드 상품권보다 상대적으로 발행비용이 2배 정도 더 발생된다. 시는 발행 총 한도를 늘리기 위해 부득이 종이상품권 발행을 축소하고 모바일·카드 상품권을 확대했다.

이에 주로 종이상품권 사용을 선호하는 시민들에게 9월 추석을 맞아 종이상품권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골목상권, 특히 재래시장 등에서 명절 장보기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추석명절 맞이 이벤트를 통하여 장기간 경기침체 및 고물가 시대 상실감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50+ 어깨동무 인생학교' 열어

익산시가 인생의 전환기에 자신을 탐색하고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자 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50+ 어깨동무 인생학교'를 개설한다.

'50+ 어깨동무 인생학교'는 평생학습 소외계층인 50대 이상 시민들에게 '삶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2의 인생 설계 지원' 등 중·장년층을 위한 인생설계 7대 영역을 중심으로 특강, 주제포럼, 자원봉사, 현장체험 등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 △재무 △사회공헌 △사회적관계 △가족 △여가 △건강 분야별로 총 10회로 운영되며 전문 강사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조강사가 상주하여 학습 요구 파악과 학습 상담도 가능하다.

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기 수강생 20명을 익산 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용담댐 물, 방축도까지 광역상수도 공급 시작

선유도서 방축도까지 해저관로 3.4km 매설... 도서지역 고질적 물 부족 해소 기여

용담댐에서 공급되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방축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군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해 선유도에서 방축도까지 해저관로 3.4km를 포함한 상수관로 7.3km를 매설하고 가압장 배수지 등 수도시설을 설치해 지난 24일부터 본격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

79세대 138명이 거주하고 있는 방축도는 그동안 지하수와 해수 담수화에 의존해왔으며, 가뭄 등 물 부족시 생활용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번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도서지역의 식수난이 해결돼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이 증진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대하고 있다.

또, 명도에서 말도까지 광역상수도 공급 대책도 추진 중이다. 시는 말도



용담댐에서 공급되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방축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명도~방축도 연도교 건설공사에 맞춰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64억 원을 투입, 관로 7.3km 등 수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다.

이종혁 수도사업소장은 "육지에 비

해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도서 지역에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식수원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더 이상 식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추석 명절 장보기 '전통시장 활력'

익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장보기 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둔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기침체에 빠진 전통시장에 인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

리기 위해 익산시 전 공무원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 활성화에 동참한다.

특히 다음달 7일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국·소·단별 직원들이 활기찬 명절 분위기를 북돋고 활력있는 전통시장을 위해 다리로움 지역화폐와 은누리 상품권을 이용한 명절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지역 내 전통

시장 상점에서 익산 다리로움 카드를 이용한 금액이 3만원 이상인 고객 1천 명에 한해 추첨을 통하여 1만원 다리로움 포인트를 지급하는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은누리상품권 및 다리로움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전통시장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 동참으로 풍성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앞으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전북도 지역 먹거리 계획 포럼' 개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민관소통·협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계획 기반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 6개 시군 담당자와 여러 농민 단체 관계자가 모인 '전라북도 지역 먹거리 계획 포럼'을 25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주최하고 전북먹거리연대와 군산먹거리연대가 함께 주관했으며, 전북 서부권 6개 시군(군산, 익산, 정읍, 남원, 순창, 부안)의 먹거리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 각 지자체별 먹거리 정책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6개 시군 담당자와 청중이 함께 참여하는 자유토론을 진행해 각 시군

별 먹거리 문제점과 과제별 해결방안을 공유하고, 먹거리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후 전북도가 직접 운영하는 먹거리통합관리센터의 출범을 앞두고 각 시군별로 운영중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간 유기적인 협력과 효율·효과적인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열린 논의를 이어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북의 미래 먹거리 정책 구상을 위한 포럼을 군산시에서 개최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며 군산시민을 대표해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